



“벌써 5년이라니 실감이 안나네요”

“춤, 음악, 술, 사람. 송언니를 상징하는 키워드”

“송민영 동지는 어디서나 빛나는 사람”

“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눈빛으로  
남은 길들을 함께 걷자”

## 故 송민영 5주기 추모집

